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월 10일 (제107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희망을 버리지 말라

애야! 요즘 많이 힘들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 나도 안다. 어디 너 뿐이겠니? 많은 자들이 헤어지기 힘들 만큼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누군가 세상은 고해(苦海)라고 하더니 요즘이 딱 그런 시절을 지나는 것 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겠니? No. 너나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기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애야! 네 고통이 욕이나 나오미의 고통보다 적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누구나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니까. 그러나 욕과 나오미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네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다. 욕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자기를 정금 같이 귀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고, 나오미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턴 신호등임을 깨달았다. 깨닫는 게 복이지. 너도 부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고통을 당한 자가 어디 욕과 나오미 뿐일까?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나도 다 호된 고난을 통과했지. 깨달은 것은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야. 터널은 뚫려 있어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면 밝은 세상이 나온단다. 그러나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영원히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야 한다. 평생 동굴에서 살기가 싫거든 지금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라.

애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가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듯이 말이다. 그러니 고난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바람이 불면 옆드리듯 고난 중에는 옆드려 기도해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동력이나니까.

나는 네가 고난 속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승리하여 훗날 멋진 추억담을 얘기하길 원한다. 일어나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죄악과 이혼하라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러졌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불평 대신 '법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코로나 덕분에'라고 시인하며,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았다. 코로나 덕분에 내 신앙이 쪽정이인지 알곡인지 점검하게 되었고,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실감하고 기쁨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기 위해 더욱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또한 인정(認定)이란 곧 신뢰와도 뜻을 같이 하는데, 신뢰(信賴)란 한자를 풀이해보면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이 합쳐서 신(信)이고, 뢰(賴)는 뭍을 속(束)변에 질 부(負)가 합쳐서 된 것입니다. 이 뜻을 보자면 '내 말을 사람의 등에 실어 보낼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겨도 걱정되지 않는 사람, 의심되지 않는 사람, 안심되는 사람이 인정받는 자요, 신뢰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신뢰받은 자입니다.

잘못한 자도 신용불량자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야말로 회생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입니다. 얼른 깨닫고 죄악과 이혼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신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緣)을 잘 맺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연이 있습니다. 이 악연은 참 질겨서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연을 맺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맺었다면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끊어내야 합니다. 영킨 실타래는 잘라내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릴라



총회장 목사님은 설교에 앞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는다.

목사님의 신년 첫 메시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면 죄악과 이혼하라.”였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죄악과 이혼하세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의인화 하면 마귀일진대 하나님이 죄를 밥 먹듯 하는 자를 어찌 인정하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인정(認定)이란 한자를 보면 말씀 언(言)변에 참을 인(忍)으로 이루어진 알인(認)자와 집 면(㇀)변에 바를 정(正)이 합쳐 정할 정(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뜻을 헤아려보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와도 참고 바르게 행하여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더욱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고 통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피 뿌리기까지 싸우셨듯 우리도 죄악과 이혼하고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죄와 싸워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끝난 겁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사자 굴에 떨어져도 살아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복이 2021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면 부채를 못 갚은 자만을 생각하는데,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를 꾸지 못한 삼손 꼴 나고, 이세벨을 쫓지 못한 아합 꼴 납니다. 다윗처럼 사울의 연을 끊을 때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6:14~16).

회개란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과 이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죄악과 이혼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전권을 위임받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은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묘수 전도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24~30)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공통점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사람들, 꼭짓점 인생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선전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곧 24시간을 그들은 쪼개서 쓰고, 심지어 갈아서 썼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성공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이는 야곱의 고백이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왕상19:10), 이진 엘리야의 고백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시119:148), 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지런히 살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잠았었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찌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느4:21~22)고 고백함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부지런에 있었음을, 부지런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일찍이 편안함을 거부했기에 오늘날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을 부식시킨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편안함을 거부한 자들의 몫입니다. 놀 것 다 놓고, 먹을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성공한다면야 누가 부지런을 떨겠습니까? 동창이 밝도록 자고 놀지요. 그러나 성경은 부지런과 게으름이 빛과 어둠처럼 상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이제 왜 내가 가진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늘 바닥신세인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진짜 단순하고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교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근면, 성실’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요즘에는 그 소리가 참으로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게 진리 중의 진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할 근(勤), 힘쓸 면(勉),’ 즉 부지런히 일에 힘쓴다는 것이 근면이요, ‘정성 성(誠), 열매 실(實),’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 성실 일진대 그런 자가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

즘은 그런 자를 ‘꼰대 라떼’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꼰대 가

아 나라 성공의 로의 정도 (正道)를 밟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그 애기 하시네.”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알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알면 뭐 합니까? 깨달아야지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 게으름을 잘라내야지요. 그래서 남들처럼 성공해야지요.

어느 주인이 각자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곧 부지런히 나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

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마25:24~25). 자고로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아주 잘 댑니다. 지각한 자들에게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길이 막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잠26:13).

그런데 주인이 핑계나 대고 있는 자에게 분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며 바깥 어둔 데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마25:30).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로 비유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게을러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를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

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눅19:27)고 했습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게으름이 그저 좀 느린 성격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육은 물론이고, 영혼도 죽여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기도하지’, ‘주중에 오늘 교회는 인터넷에 배로 드리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이요, 악은 곧 마귀입니다. 즉 게으름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하라고, 내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도착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어둠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영·혼·육에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을 좇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살전5:15~17). ‘항상’, ‘쉬지 말고’는 ‘부지런히’라는 말과 동의어이니까요.

여러분, 게으름은 한 마디로 ‘무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던 자들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새벽부터 부지런을 땀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나 조장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다른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놈 중에 최악은 인생을 도둑질하는 놈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말입니다. 성경은 “때를 아끼라”(엡5:16)고 했는데, 매일 빈둥빈둥 놀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하고, 심지어 차려놓은 밥상에서 수저 올리기도 귀찮아하는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고, 그런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혹시 직원 중에, 제자 중에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기 때문’(잠10:26)입니다. 이빨에 초를 붓고, 눈에 연기를 뿌려보십시오. 이빨이 다 빠질 것이고, 눈도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학연이요, 지연이요, 혈연이요 하며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게으른 천재보다 성실한 사람이 낫다

에디슨은 무슨 일을 할 때 시계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지런하다는 것은 집중력과 상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손발보다 머리를 부지런히 쓰는 것이 더욱 유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쇠덩어리로 엿을 바깥 먹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낫이나 호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아 몇 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머리가 부지런히 돌아가야만 가능하고, 어떤 일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혼·육에 부지런한 자가 됩시다. 주경야독(晝耕夜讀), 형설지공(螢雪之功), 이런 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자들을 대변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또한 건강할 때 부지런히 운동하고, 보약도 먹고 해야 합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병들어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 즉 병상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약방문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골2:11). 최고의 자산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공은 박수를 치며 달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1년 새해를 맞아 고단 목사님들의 새해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았다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을 발합시다!



먼저, 우리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운 다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기도 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복

음에 대해 헌신할 영적 무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 특별히 쓰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나날이 갈리는 세상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그분의 지도력을 따르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고, 높은 도덕적 표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세상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려 우리의 엄청난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약속에 담대하게 응답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할 때 이것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위기, 공포, 전쟁, 전염병으로 멸망되는 세상이 아니라 점차 침체에서 벗어날 세계를 바라보며 새해의 비전을

열어봅시다. 교회가 세상의 영적 빛으로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비추어 이 땅에서 어둠이 제거되고 열방이 어둠에서 나와 전염병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지는 해가 아니라 우리의 무게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의 영광이 아침 햇살처럼 우리 위에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2021년은 영적 대부흥의 해가 되리라!



미국에서, 사랑하는 예수중심교단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초석 목사님을 비롯하여 찬양 및 반주팀, 방송팀과 그 뒤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멀리 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은혜 넘치는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중심교회와 땅끝예수전도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가 고통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에게 COVID-19은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막는 영적 공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불신자가 주지사인 지역에서는, 비록 자신들은 모임을 갖고 식당들도 부분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교회들에게는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무렵, 추수감사절 무렵,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아예 폐쇄(lockdown)명령을 내려서 소그룹 모임조차 금지했습니다. 그 때는 거리 상점마다 문을 닫고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해에는 그 무렵에 교회들마다 거리에 나와 "Happy Easter!", 혹은 "Happy Thanksgiving!", 혹은 "Merry Christmas!"를 외쳐대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컵케이크나 캔디 등을 나누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더욱 돌봐주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품점과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거리마다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만

했던 영적 암흑과 같은 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교회들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갇혀 있는 듯했던 성도들은 인터넷예배를 통하여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임을 실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속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과거 로마시대에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성도들은 카타콤에 모여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시련을 겪은 교회들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고,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자, 바로 꺾박했던 로마를 통하여 기독교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화려한 기독교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온 땅이 쫄쫄 얼었을 때는 모든 식물들이 죽은 듯합니다. 그러나 새봄이 동트니 파릇파릇 새싹들이 힘차게 올라오기 시작하여 결국 온 세상 전체가 화창하게 살아나듯, 이제 모든 사람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묶였던 모든 것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부활이 시작되는 2021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듯이,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 있게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고 거의 1년간 병어리처럼 잠잠히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주님을 더욱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은 모이기에 힘쓰는 해요, 우리 모두 주님께 맘껏 예배드리며, 소리 높여 주님을 자랑하는 해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 봄이 동트듯, 힘차게 부흥이 일어나는 예수중심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문선 선교사

:: 책을 펴다 ::

위기는 기회다

구약장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와 겨뤄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이 고함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골리앗은 상대하기에 너무 컸고 힘이 셌기 때문이다. 그 때다.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는 미소년

이 물맷돌 다섯 개를 손에 쥐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다. "내가 너와 겨뤄보겠다. 한 번 붙어볼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물러와 그 소년을 말했다. "다윗아, 너는 아직 어리고, 네가 상대하기에 저 사람은 너무 크다. 그러니 참아라.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그러자 그 소년이 말했다. "맞아요. 저 사람은 너무 커서 내 물맷돌이 절대로 빗겨나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앞에 큰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해결될 확률도 높다. 과녁이 크면 화살이 명중될 확률도 높으니까. 어린 다윗을 보고도 아직도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가? 문제를 징검다리 삼아라. 징검다리는 클수록 편히 건널 수 있고, 멀리 뛸 수 있으니까. 지금이 위기인가? 위기는 기회다. 고로 큰

위기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대처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며,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난공불락에 이익이 많은 법이 아니던가.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담대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3:5)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론에 끝인한다' 중에서

:: 신년사 ::

:: 신앙에세이 ::

내 사랑 예수여



올해는 목사님의 남미 사역을 도와서 일한 지 20년이 됩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귀히 여겨주지 않았던 저를 사도의 표인 인내로 목사님은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셨지요. 부족한 저로 남미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믿음 부족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다 늘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100명 중에 성경 읽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었던 기억이 너무도 많은 순간과 기회가 있었고,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님 남미 사역에 짐이 되었을 때가 많았는데도 목사님의 사랑에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갈광질광한 지도 벌써 1년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어느 날 기도 중에 가슴 깊이 내 사랑 예수, 내 능력, 나의 힘, 반석,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내 사랑 예수여’ 하시지.’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내 사랑 예수여’ 찬양을 30번 정도 불렀을 즈음 가슴 깊이가 파고드는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신앙고백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염려 걱정으로 사로잡혔던 우리 마음도 이제 이 찬양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1시간씩 찬양합니다. ‘내 사랑 예수여’를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님의 신앙고백으로 코로나 전보다 더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으로 코로나를 밀까들듯 한번 해봅시다. 분명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 배운 열심과 열정과 예수님 사랑으로 해봅시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경험한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남미 선교 담당 이현숙 선교사

Good News

시편 기자는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날아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기회는 항상 우리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기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

으므로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급한 일입니까? 결혼하고, 집 장만 하고, 자녀들 키우고, 성공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땅을 치며 후회를 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은 뒤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세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새해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입학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평판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500여 명 중 300등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이 멀어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으나, 입학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기숙사 정원이 1학년의 10% 정도였으니 지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숙사는 시설이 좋은 반면, 시 외곽에 있는 학교 근처 시골 마을의 하숙집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가족을 키우던 축사를 개조해 만든 협소한 방은 모든 것이 불편했고, 손바닥만 한 창문을 바라보고 있 으려니 쓸쓸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골방에 홀로 있으니,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이하게도 옆방에는 성적이 매우 좋아서 학교에서 주목받는 고3 선배가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숙사 생활이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그 선배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첫 중간

고사가 다가오자 선배는 “사립학교라서 선생님이 계속 남아있어 비슷한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서 시험공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배가 알려준 대로 공부하고, 첫 시험을 보았습니다. 교실에서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상위 성적의 학생을 맞추는 내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입학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지목했고, 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성적이 발표되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300등이 전교 12등을 했으니 저 또한 믿기지 않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을 유지하다가 다음 해부터 원하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감작 선물로 고3 마지막 시험에는 전교 1등의 자리도 주셨습니다. 입학 당시, 열악한 하숙집에서의 생활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으나 저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더불어 좋은 선배를 과외 선생님이로 붙여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으며, 왕의

시위대장에게 신임을 얻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절망적인 순간에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할 술관장을 만나고, 왕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창37:1~36, 창39:1~45:8).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도 형태가 다를 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기를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더 낮아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 더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낮아진 그곳에서 잘 견뎌낸 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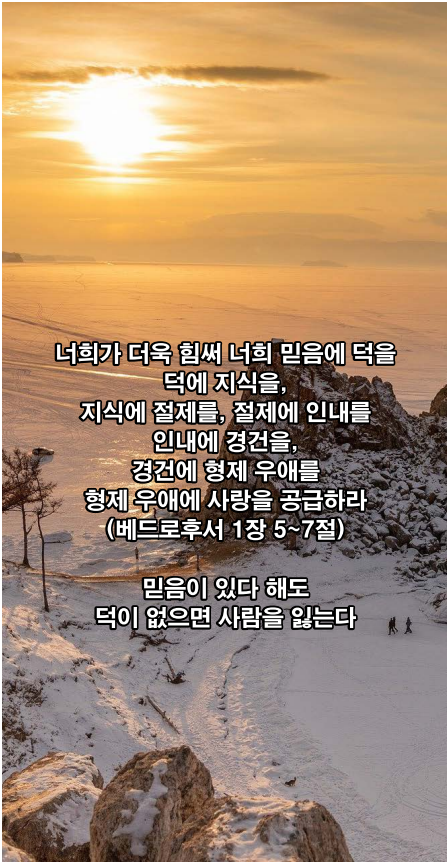
정명관 성도

v-777@naver.com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태어난 날이 아직도 눈에 선명하구나. 형은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아침에, 동생은 따스한 봄날 밤에 태어났지. 크리스마스에 퇴근길에 사간 케이크 몇 조각을 먹고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든 아빠를 밤에 엄마가 깨우더라고, 양수가 터졌다며. 추운 겨울밤 엄마와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에 “아침, 아이 나올 때 힘이 있어야지.” 하며 엄마랑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사먹고 가려다 식당 문이 닫혀 결국 케이크 힘으로 10시간 진통하며 형을 낳았던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땀줄을 자르고 난 후 잠깐 집에 짐을 챙기러 다녀올 때에는 눈이 참 많이 내렸었지. 동생은 출산 예정일이 며칠 남아있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엄마가 저녁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어 급하게 병원에 가 수술로 낳았지. 그땐 형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가 태어나 신기해했었는데, 키우다 보니 어쩔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건 더 신기하더구나. 형은 벌써 이렇게 커서 내년에 십대에 들어서고, 아직 어린 동생은 커가는 속도가 형보다 두 배는 더 빠른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언제 좀 편해질 수 있으려나 싶다가도, 너희들 어린 시절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가장 잘한 일은 너희들을 낳은 건데, 요즘 세상을 보면 혹여나 환난의 날에 너희들을 낳은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도 있지.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많은 추억 만들자. 서로 많이 사랑하자.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자.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 우리 늘 행복하자. 사랑한다, 많이.

박찬영 집사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7절)

믿음이 있다 해도
덕이 없으면 사람을 잃는다